

“보살사상은 조로아스터교 영향받아”

심재관 前금강대 HK교수 불교학연구회 여름 워크숍에서

불교의 보살 사상이 인도불교 초기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와 힌두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인 주장이 대두됐다.

심재관 前금강대 HK교수는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가 7월 19~20일 '보살과 미륵신앙'을 주제로 김제 금산사에서 개최한 여름워크숍에서 '보살사상의 외래적 유입과 영향'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심 교수는 “불교의 보살사상에는 구도자로서의 모습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특히 조월적 존재로 인간을 구원하는 모습은 조로아스터교의 구원자인 ‘샤오쉬안트’ 사상과도 닮아있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인간의 구원자로서 다음 세대에 인간의 세계로 다시 와서 종말의 시간에 인류를 이끌 것이라는 조로아스터교의 ‘샤오쉬안트’ 개념은 불교에서 미륵보살의 존재와 매우 흡사하다”며 “불교가 나타나기 전 인도와 인접한 지역에 이러한 사상이 성행했다는 점에서 두 종교간 영향을 미칠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7월 19일 6세기 중반에서 4세기 초, 인도

에서 불교가 교학적 발전을 거듭하던 당시 인도 서쪽에는 페르시아의 전신인 아케메니아 제국이 있었으며 이 제국에서 신봉된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의 전신인 자라투스트라교이다.

조로아스터교에 “좋다”는 수식어를 자주 사용하는 등 표현상 배려가 보인다”며 “조로아스터교가 불교 형성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보살사상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됐다”고 역설했다.

7월 19일 ‘보살사상의 외래적 유입과 영향’

조로아스터교 ‘샤오쉬안트’ 개념과 비교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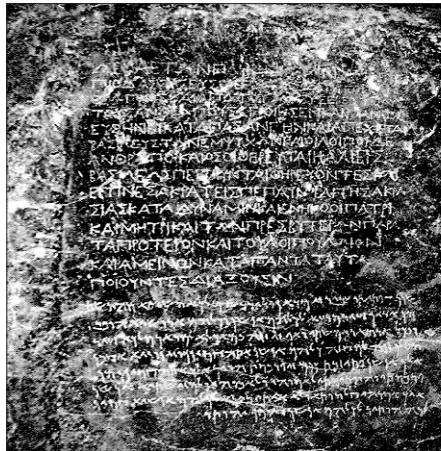
중세 인도사회 위기 속에 보살 구원신앙 발전

심 교수는 이들 종교가 고대이란종교로서 초기 힌두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양 종교의 영향에서 초기불교계가 조로아스터교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심 교수는 “아쇼카 비문을 보면 조로아스터교인들에게 악신(惡神)을 뜻하게 되는 ‘데바(deva)’라는 단어를 배제하는 하

심 교수는 이어 “이러한 불교 내부의 내재된 보살사상은 당시 그리스인과 쿠산왕조의 침입으로 인한 시대적 분위기로 외부로 발현된다”며 “당시 힌두교에서도 힌두교의 최고신들이 인정받으며 구원에 대한 믿음이 널리 팽배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학연구회의 여름 워크숍에서는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노덕현 스님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아프카니스탄 칸다하르 지역에 있는 아쇼카 비문. 위쪽은 그리스어로, 아래쪽은 아람어로 적고 있다. 이 비문에는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이 대거 실려있다.

보살이란 누구인가’를 주제로 기초강연을 진행했으며 박광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HK 연구교수의 ‘진표와 미륵신앙’ 등이 발표됐다. 또 최희남 중앙승가대 교수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으며 워크숍 후 최연식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안내로 김제 귀신사와 완주 송광사, 화암사 등을 순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해인사 내전수함음속 목판 보물 지정

문화재청, 7월 16일...대승경전 음해석 담은 경판

‘합천 해인사 내전수함음속 권490 목판’이 보물 제1806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7월 16일 해인사 내전수함음속 권490 목판을 비롯한 4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806호로 지정된 ‘합천 해인사 내전수함음속 권490 목판’은 1245년(고려 고종 32) 대장도감에서 판각해 완성한 경판이다.

내전(內典)은 부처님의 설법을 담은 불경이고 음소(音疏)는 음에 대한 해석을 뜻하는 것으로, 대승불교의 6가지 실천 덕목인 육바라밀을 설명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야 스님이 한역한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大乘理趣六波羅蜜多經)’의 10권에 대한 음의(音義)를 내용으로 끝부분에 ‘을사세고려국대장도감봉직조조(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의 간기(刊記)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날 태조 권원릉 신도비(보물 제1803호), 서울 태종 헌릉 신도비(보물 제1804호), 서울 세종 영릉 신도비(보물 제1805호) 등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함께 지정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美미술관과 고려불화 공동연구

7월 12일 프리어·새클러 미술관 MOU 체결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7월 12일 미국 프리어·새클러 미술관(Freer Gallery of Art and Arthur M. Sackler Gallery, 관장 Dr. Julian Raby)과 미국 현지에서 미국 내 고려불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재의 보존·활용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MOU)을 통해 양 기관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안휘준)은 △미국 내 박물관 소장 고려불화 조사·연구 △프리어·새클러 미술관 소장 고려불화에 관한 고해상도 디지털 사진과 연구 자료 누리집(Web Site) 공개 △고려불화

보존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2014년 하반기에는 프리어·새클러 미술관의 누리집(www.asia.si.edu)에 한국어와 영어로 고려불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 워싱턴 소재 프리어·새클러 미술관은 스미스소니언(Smithsonian) 계열 국립박물관들 중에서 특히 아시아 미술품을 전문으로 전시하는 기관으로 한국문화재 전시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500여 점의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승시 활성화 사원 경제 근간... 문화행사로 계승을”

2013 승시 세미나에서 목소리 모아져

고려시대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던 사원경제 이면에 생산불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 불교계가 사원경제의 확대를 통해 사회영향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 동화사(주지 성문)가 7월 19일 대구 반월당 보현사에서 개최한 2013 승시세미나에서는 생산불교를 통한 사원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모아졌다.

이날 ‘고려시기 사원의 수공업과 교역’을 발제한 송승안 경남대 교수는 “고려시대 사원수공업의 발달과 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토대는 고려 후기 불교계가 수공업 생산 활동을 비롯하여 상업행위 등과 관련된 모든 사원의 경제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불교계의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손 교수는 “고려시대 사원은 국가 공적 기관으로 토지를 지급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원경제를 발전시켜 나갔다”며 “사원의 경제적 기반은 사원 운영과 승도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였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 등의

간섭으로 국가차원의 공업이 쇠퇴하며 상대적으로 사원의 수공업이 경제활동에서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며 “사원의 경제적 기반은 여러 폐단을 낳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불교계가 자립할 수 있는 근간이자 사회영향력의 단초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민수 중국 산둥대 문사철연

고려불교 영향력은 승사에서 비롯 중국 남종선 발달 이면에 토지경작 오늘의 문화콘텐츠 개발 과제

구소 연구원은 “중국 고대 사원의 시장기능 고찰”에서 남종선의 발달을 예로 불교계의 경제적 기반 마련이 정교분리의 시작임을 주장했다.

남 연구원은 “중국불교는 성장과정에서 제왕과 귀족의 경제적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북방의 경우 고승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많은 노동력을 확보해 사원의 경제적 토대를 만든 반면, 남방의 경우는 다수의 토지를 확보해 사원의 경제적 토대



승시는 '무소유'의 승가 전통을 되살리고 고대 사원경제의 축으로 자리한 승단의 전통 정터를 재현하는 자리다.

로 삼았다”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사원경제는 회장법단을 계기로 쇠퇴하는데 이중 자립기반을 갖춘 남방의 선종이 살아남는다”며 “정치적 상황에 의존하는 불교의 경제적 기반은 시간이 흐르며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불교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사원경제의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관동미 영남불교문화연구원 상임연구원은 “승시 축제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템플스테이 등 불교체험과 함께 ‘승시’란 문화콘텐츠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며 “각 사찰의 장터 개발 및 연계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상임연구원은 “승시는 재현을 넘어서 세대를 뛰어 넘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로 개발돼야 한다”며 “가족단위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가 승시의 계승과 보존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말레이시아大와 학술교류협정

천태종 종림 금강대는 7월 11일 말레이시아 말라야 대학교 학술교류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체결에 따라 두 대학은 앞으로 매년 5명 정도의 교환학생을 파견하는 교류 협력 사업과 함께 합동 연구 활동, 학술자료와 출판물 교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강대는 지금까지 8개국 26개 해외대학, 교육기관과 교류협정을 맺었으며, 2013년에도 미국 3개 대학과도 학술교류협정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유가사 불교유산 지정문화재 승격 나서

대구 유가사(주지 호암)가 사찰의 석탑·괘불 등에 대한 지정문화재 승격에 나섰다. 대구 유가사는 7월 17일 사찰 시장 루에서 대학교수 등 문화재 관련 전문가 6명과 불교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가사 보유 문화재의 지정문화재 승격 및 비출산 명승지 지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유가사에는 석조여래좌상, 대웅전, 용왕전, 산령각, 범종루, 천왕각, 백화당, 나한전 등건축물과 낙암과 월호 등

15기의 석조형 부도 등이 온전히 보존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현 前문화재위원, 최응천 동국대 박물관장, 홍광표 동국대 교수, 김용기 성균관대 교수, 엄기표 단국대 교수, 정광용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등 석학들이 대거 참석했다. 유가사 주지 호암 스님은 “유가사가 보유한 각종 정보(聖寶) 문화재의 관리환경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61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최면학 교수(전)
국제 임상최면전문가(ICHT)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외 각종 케이블방송에 300회 이상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해결은 물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는지, 원하는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한다.

사주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사주속에 숨겨진 영가보는 법과 심리적인 것 까지 읽을 수 있는 법” 을 배우게 된다.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 개강 : 8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4-8(명상센터 3층)
042) 255-0734~5